

## 우도 신궁: 절벽과 단괴

우도 신궁 주변의 해안선에는 독특한 모양의 바위와 돌덩어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수백만 년 전에 발생한 지질학적 현상으로 인해 생성되었습니다. 신이 머무는 건물인 혼덴이 자리한 동굴을 포함해 이곳의 절벽은 단단한 사암과 부드러운 이암이 겹겹이 쌓여 형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부는 약 800 만 년 전의 지진으로 인해 모래와 진흙이 층을 이루며 해저에 퇴적되었고, 해파리와 해삼 등을 비롯한 여러 유기체가 층 속에 묻혔습니다. 층을 이룬 모래와 진흙이 각각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지면서 현재 우도의 해안에서도 볼 수 있는 노란빛의 바위가 되었습니다. 절벽 측면의 곳곳에서 돌출된 돌덩어리는 단괴(Concretion 또는 nodule)라고 불리며, 해수에 포함된 칼슘의 영향으로 유기체의 사체 주변에 있는 부드러운 침전물이 응고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암반이 용기하면서 단괴가 산재해 있는 절벽이 이처럼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연에서 탄생한 걸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도 신궁의 동굴은 수백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암반이 부서지고 깎이면서 이윽고 신이 머무는 곳으로서 숭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